

#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05/04/2025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판은 자전거 공장인데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 공장은 자전거 공장이 아니라 라면 공장이다.> 이 말은 이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활동을 보면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 하지만 그 존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주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 건물을 지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Kuriak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 말은 건물과 조직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게르만 언어에 영향을 주었고, “kuriakon→kuriak→kirch(독)→church(영)”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기독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의 조직과 성당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교리 조차 왜곡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로마교회와 싸우느라 선교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습니다.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라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선교는 19세기말에나 가능했습니다. 20세기 초,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불이 불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선교의 시대”라고 불리는 20세기에 일부 교회들만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불타지 않는 불은 없듯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울림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민 교회의 피동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를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무지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버이주일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과 주변 어버이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6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초청음악회(가칭)>에도 지금부터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울림교회 담임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울림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